

농촌진흥청, 여름철 폭염 대비 육계 농가 현장점검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25일 전북 익산 육계 농가 방문
- 가축더위지수 활용 현황 점검 및 폭염 피해 예방 기술지원 방안 논의
- 조 원장 “폭염 대응 현장 기술지원 지속 확대할 것”

※2026. 6. 25.(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우리팜스 농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6월 25일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합열읍에 있는 육계 농가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 원장은 농가 대표를 만나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현장 활용 실태와 사양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가축더위 스트레스지수와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가의 폭염 대응 사례를 들었다.

방문 농가 ‘우리팜스’는 총 6개 동에서 약 19만 마리를 사육하며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와 기상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환기, 냉각판(쿨링패드) 가동, 급이 시간 조정, 음수 관리 등 고온기 피해 저감 사양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조 원장은 폭염 시 육계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대응체계와 고온 위험 시간대 급이·음수 관리법 등을 묻고, 현장점검(모니터링) 지원 체계와 관련해 개선 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온기 세부 관리 요령 전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농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

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팜스 유찬이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잦은 폭염으로 계사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육계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용민 원장은 “육계 농가가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와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소통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축산 정보 종합 누리집 ‘축사로(www.chuksaro.ni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육계농가 폭염 피해 예방 현장 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담당자	연구사	심성훈 (063-238-7457)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방문개요

- (목적) 육계농가 고온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지원
- (일시 및 장소) 2026.6.25.(목) 10:30~11:30, 우리팜스(유찬이 대표)
 * 우리팜스(전북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45)

□ 주요내용

- 여름철 농가 사양관리 방법 및 폭염 대응 방안 점검
- 고온기 육계 사양관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육계 농가 고온 피해 저감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제시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9:50~10:30	40	○ 이동(국립축산과학원 → 우리팜스, 33km)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45	
10:30~11:30	60	○ 육계 농가 현장점검	